

걸림돌과 디딤돌

장은숙(시인)

살다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한 세상 살다가긴 마찬가지인데
좋은 일 앞장서진 못하더라도
누구에게든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나를 디딤돌로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
누군가 도울 수만 있다면
세상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

이 세상을 살다보면 수많은 일이 나를 만난다. 만날 때만 해도 그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만나고 헤어진다. 좋은 일에 앞장은 못 서도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 나를 딛고 성공하는 이가 나오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걸림돌 보다는 디딤돌이 되고자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생각하는 방향이나 각도가 남다른 일면을 시도하여 느낌을 낫설게 주고 있다. 또한 관찰을 통한 감각의 예민함이 돋보이는 묘사가 눈에 띄는 시로 승화되었다.

(윤 제 철)

더블 스탠더드

구 종 회(시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 같다. 오직 하면 지난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0년도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아시타비(我是他非)’였을까.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을 가진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옮긴 신조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스(NYT)가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한국 여당이 참패한 요인들을 소개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내로남불(Naeronambul), 즉 “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라고 언급한 뉴스를 접하고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게 느낀 적이 있다.

‘내로남불’의 가장 적합한 영어 표현은 이중 잣대(기준)를 뜻하는 ‘더블 탠더드(double standard)’가 아닐까. 사전에 의하면 “double standard”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공평한 법적, 도덕적 기준”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강하다. 문제는 그러한 이기심이 남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큰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는데 있다.

성경 말씀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탄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온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야만 위선자나 파렴치한 인간이란 남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인간관계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은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 판단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리에서 나를 바르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르기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나 사리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관을 앞세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할 때만이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으리라.

하루속히 우리 사회에 수치스러운 ‘내로남불’의 악폐가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 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나만의 생각일까?